

# 미래의 주역을 위한 아름다운 실험, 팬타지·팝업북·보드북·빅북

문정윤 시공주니어 편집부

설레고 고단한 볼로냐 가는 길



11시간 가량 건조한 비행기 안에서 몸을 뒤척이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다.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피렌체 도착, 또 다시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다. 만만치 않은 여정. 너무 피곤했다. 다음 날이 바로 볼로냐 도서전 일정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탈리아의 아름답고, 작은 도시 볼로냐는 각종 박람회로 유명하다. 이 중 '볼로냐 국제도서전'은 출판인들에게, 특히 어린이책 출판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세계 각국의 어린이책 출판사들이 한데 모여 저작권 교류는 물론, 한 해의 어린이책 출판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일러스트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볼로냐 도서전이 올해로 세 번째 참관인데 올 때마다 늘 긴장되고 새롭다. 이번엔 어떤 책들이 있고, 어떤 일러스트가 전시되어 있을까? 한껏 기대에 부풀어 도서전 시장으로 향했다. 일러스트는 각국에서 출품되어 선정된 작품들이었고, 동구권 일러스트가 주를 이루었다. 영미, 독일, 프랑스 쪽에서 벗어나 좀더 다른 국가들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주제의 다양성, 형태의 다양성

올해도 역시 판타지의 강세는 식을 줄 몰랐다. 전세계가 판타지에 모두 열광해 있는 듯했다. 상상과 모험이라는 인간의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들을 잘 버무려 만든 이야기라 초등학교부터 어른까지 사로잡은 것일까?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 이후, 외국 메이저 출판사들에서 내놓는 그야말로 야심작이라는 책들이 대부분 판타지였으니까. 그림책들은 비슷비슷한 팬시풍의 그림들이었고, 읽기책(스토리북)들도 새로운 소재나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다.

외국 어린이책을 둘러보며 가장 부러웠던 점을 한 마디로 말하라면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책에서는 주제의 다양성이, 유아 책에서는 형태와 재료의 다양성이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 얼마나 나와 있는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에 나오는 고전이나 성인 책들을 읽고 있다. 다양한 그림책과 읽기책을 읽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독자들이 청소년이 된 지금, 이런 고급 독자들을 끌어안을 만한 책이 드문 게 현실이다. 청소년들의 심리를 꿰뚫고 공감을 얻을 만한 책들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다. 유아 책도 마찬가지다. 팝업북,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보드북, 책을 계속 펼치면 한 장이 되는 책 등 다양한 형태로 시도된 책들이 많다. 하나의 책도 여러 형태로 책을 낸다. 예를 들면 《잘자요, 달님》(국내에서는 시공주니어가 출간했다)이라는 책이 있다.

소비자는 입맛이 까다롭다

외국에는 양장 그림책, 반양장 그림책, 보드북, 팝업북, 빅북(크기가 그림책 4배 정도) 등 다양하게 나와 있다. 같은 내용의 책이라도 소비자들이 필요에 따라, 또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도 독자들에게 융통성을 가지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겠다는 다짐을 해 봤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해 도서전 직전에 미팅을 취소하거나, 아예 참여를 포기한 곳들도 여럿 있었다. 그래서인지 작년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때와 비슷하게 조금은 가라앉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한국인들은 어김없이 많았다. 2000년부터 볼로냐 도서전에 한국인들이 많이 가기 시작했다. 올해 참가자만도 300여 명이라고 한다. 전시장에서 마주치는 동양인은 거의 한국인이었다. 여기가 서울국제도서전 현장인가 착각할 정도였으니. 혹자는 볼로냐 전시장 앞에서 김밥만 팔아도 한밑천 잡겠다고 했다. 이 말에 모두들 웃었지만, 그 뒤에 남는 씩씩함은 비단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으리라.

이런 현상은 최근 한국에 어린이책 시장이 넓어지고, 우후죽순처럼 어린이책 출판사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관련계약을 둘러싸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결국 우리끼리 제 살 깎아먹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몇 년 전부터 외국 출판사들이 다른 모든 조건은 차치하고 선인세와 인세율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경향이다. 유명한 작가의 책은 미팅 자리에서 바로 엄청난 선인세로 오퍼하는 추세니까. 특히 이번엔 큰 출판사들이 점점 공동 제작을 원하고 있었다. 팝업도 아닌 일반 그림책까지도. 그런 책을 공동 제작할 경우 품질되거나 소매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반면 외국 출판사에는 유리하다. 판매보고에 대한 걱정은 싹 사라지고 인쇄비가 큰 폭으로 떨어지니 말이다. 외국 출판사의 횡포라는 생각에 화가 났다.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머리에 떠오르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다. 우리가 판권 수출권이 되면 되지 않을까? 반도체도 팔고, 자동차도 파는데 우리 정서가 녹아 있는 책을 못 팔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일본도 영미권, 유럽 쪽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전하고 있으니까. 몇몇 의식 있는 한국 출판사들이 몇 년째 부스를 내고 우리 책을 널리 알리고 있다. 재미마주를 위시해서 세계질, 길벗어린이 등이 그런 곳들이다. 그 외 출판사들도 국내 창작물의 영문 카탈로그를 만들어 수입보다 수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국내 창작물이 수출되었을 때 그 짜릿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아직은 대부분이 아시아 쪽이지만 점점 영미, 유럽 쪽으로 뻗어나가 쾌재를 부르며 기뻐할 날이 멀지 않길 바란다.



더불어 또 하나의 도서전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2월에 참관했던 타이베이 도서전은 인상적이었다. 최근 일어나는 중국 붐으로 인해 대만을 발판으로 중국 시장을 조심스럽게 타진하려는 출판사들이 늘고 있다. 규모 면이나 내용 면이나 국제적인 면이나 서울국제도서전보다 앞서 있었다. 이제 6월이면 우리도 국제도서전(올해로 서울도서전이 국제 도서전으로 거듭난 것이 9회째이다)을 개최한다. 국제라는 말에 걸맞는 도서전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도서전은 그야말로 책 판매장으로 전략하지 않았는가! 각 출판사들은 부스 참가비와 설치비를 충당하기 위해 책을 판매하고, 아이들 교육에 열성인 엄마들은 아이를 등에 업고, 한 손으로는 아이 손을 잡고 이 부스 저 부스를 돌아다니며 할인율을 체크한다. 2003년 서울국제도서전은 더 많은 홍보와 알찬 구성으로 할인되는 책을 구입하기 위한 시장이거나 국내 출판인들만의 정보교환의 장이 아닌, 제대로 된 도서전이 되길 바란다. 첫술에 배부르랴! 조금씩 노력한다면 볼로냐 도서전보다 서울국제도서전이 더 알찬 도서전이 될지.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해외도서전에 가야 하는 고생 길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추천**

